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할 기세로 비약의 열풍을 일으킨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대담한 작전

청천강에 계단식으로 밀려서는 발전소건설장마다에서 《마식령속도》 창조열풍, 제2의 희천정신창조열풍이 새차게 나래치고 있다.

지난 25일 5호발전소건설장에서 청천강의 흐름을 둘러싼 방대한 1차가물막이공사가 성과적으로 계속되며 이어 26일에는 6호발전소건설장에서 우안연계건설을 위한 1차가물막이공사를 형성하였다.

다른 리단들의 전투장에서도 발전기실과 취수로암반굴착설비가 나날이 오르고 언제, 수문기동, 물고기길코르리타입이 본격화되는 속에 이제는 각 발전소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런가하면 당의 은속에 마련된 대형화물자동차들의 동음이 날이 갈수록 높이 울리고 언제 및 탐식기중기로, 선별장건설이 공세적으로, 밀집적으로 힘있게 추진되어 발전소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있다.

전당, 전국각적인 힘을 집중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성의껏 마련한 설비와 자재, 로동보조자와 후방물자들을 안고 이곳 전투장을 찾아오는 성, 중앙기관들과 각도, 시, 군인들과 근로자들의 지원열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공격적인 합성드높은 여기는 희천6호발전소건설장이다.

지금 우리는 물고기길기초굴착과 수문기동의 기초공구리타입이 동시에 벌어지고있는 평안북도전당의 전투장에서 이 소식을 전한다.

주요구간의 1선가물막이공사를 한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된 기세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양양된 열의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뿔뿔이어나 불붙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라!》

《당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6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가까운 몇해안에 끝내기 위하여 취해주시던 중대한 조치들과 크나큰 사랑은 건설에 참가한 전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기적적으로 한길로 줄달음칠수 있게 하는 무한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본격적인 공사계획에 들어선 요즘 양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자신들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한사람같이 분발하고 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책임자 심상모, 참모장 권영태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당일에 결의다전대로 올흔 높이 세운 공사목표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대담하고 필적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다.

시공분과 성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해를 가신 모든 발전소건설장들의 실패를 해부학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올흔 중에 도달하여야 할 대상별혼서

수행하는 자랑을 펼치고있는 정주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이 화선에 나선 병사마냥 착암실비를 틀어치고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간다. 혁신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향산군대대의 구성시대대, 동명군대대의 전투원들도 말은 구간의 기초공작업을 외닥다 다그친다.

현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돌격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창조물을 일떠세워 간다는 크나큰 긍지와 영예가 한껏 어려졌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총력량을 집중하여 단숨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하는것이 우리 리단의 기일이요 투쟁분대입니다. 우리는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올흔 발전소건설과제를 무조건 제기일에 끝내겠습니다.》

주요구간의 방대한 량에 달하는 1선가물막이공사를 한주일 동안에 끝낸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리단장 신동혁동무가 확신에 넘쳐 말한다.

그의 말에 화답하듯 힘찬 발자국이 건설장을 뒤흔든다. 팡-팡, 팡-팡- 팡-팡- 전투장에 나뉘는 창조와 비약의 열풍속에 공사실적은 또다시 부쩍 뛰어오른다.

본사기자

있었다. 지난 9월 11일과 12일에도 황해남도리단과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가 말은 5호, 4호발전소건설장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각 리단의 지휘관들이 연계를 가물막이공사와 기계설비의 효과적리용에서 좋은 경험들을 본받도록 하였다. 한편 자체의 수리기지를 강화하여 자동차가동들을 높이고있는 자강도리단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운수기재들의 실패를 높이는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중양지휘부와 해당 부문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발전소건설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련관기관 련합기업소의 기능공들로 조직된 수리분사대 성원들의 책임감과 열의를 높이는데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자신들부터가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애국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뛰고 또 뛰며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 있다.

리단별사회주의경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면서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적극 앞받쳐나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대적,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난 9월 25일, 밤낮이 따로 없이 근 한달째 총돌격전이지역하게 벌어지던 희천5호발전소건설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주기에는 중요한 열의와 힘을 가지는 새로운 1선가물막이공사가 마야흐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어 언뜻언뜻

기운차게 용을 쓰며 바가지들 들어올리는 굴착기와 적체함마다에 토랑을 가득 싣고 연방을 이타치는 대형화물자동차들, 장사철을 치고 구부로 내달리는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그야말로 온 건설장이 불도거나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졌었다.

13시 15분, 마지막 남은 1m구간에 폭포처럼 토랑이 쏟아져내리니 량쪽에서 마주 향해오던 가물막이벽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다.

《만세, 만세...》

수수천년 흐르던 청천강의 흐름을 휘어잡고 광만하는 대자연의 길들인 정복자들의 우렁찬 환호소리가 수려한 산발에 깔렸이 메아리쳐갔다.

발전소건설에서 또 한번 장훈을 부르게 된 환희로운 이 시각, 현신의 피와 땀으로 쌓아놓은 자기들의 창조물을 긍지롭게 바라보는 황해남도리단의 전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눈앞에 지나온 결사전의 25일간이 주

있게 운영하였다.

관람자들은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보여준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며 감동받은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경기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일군들이 2:0으로 이겼다.

한편 경기장에서는 조선인민군창작사와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들의 속사경기가 2:0으로 이겼다.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명창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갈 결의에 넘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기물 희천9호발전소까지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현장지휘부의 분과장이상 모든 일군들과 설계, 시공성원들이 한데 련단적 말고 아래에 내려가 실속있는 공사지도를 짜고들고 있다. 11호, 8호발전소건설장에 내려간 분과장들인 윤철호, 장신남동무들은 부촉되는 공사용위들과 목재, 전동기부속품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어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시공분과의 전동차, 문물현동무들은 높은 책임성과 이신착적으로 9호, 5호발전소건설장의 여러 대상에 대한 시공지도를 앞세움으로써 이 단위들이 혁신의 앞장에 서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중요자재보장을 맡은 리상호, 리철진동무들도 자기들이 맡은 것만큼 공사속도가 높아진다는 자각을 안고 하루에도 수백리길을 오가며 애국현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

올해전투목표달성을 위한 열쇠는 우리들의 손에 위여져있다.

바로 이런 높은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오늘날도 대담한 작전과 혁명적인 실천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서서 열어나가고 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속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이날이 갈수록 더 높은 공사실적이 기록되고 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평양시리단의 돌격대원들이 발전소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치고 있다.

이들은 9월초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6개의 연계수문기동에 대한 기초공구리타입을 1주일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하루 최고 400m의 타입실적을 기록하며 지난 25일까지 시공이 복잡한 말안장형인 5개의 무덤이연계공구리타입을 완전히 계속하였다.

지금은 취수로암반굴착전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어 수수천년 문혀있던 천연암반들이 드러나고 한쪽에서는 여러개의 수문기동이 우뚝우뚝 솟아나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강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의 역센 뿌리가 되려는 애국현신의 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이겨내 오늘 1분 1초를 배

일을 위한 위훈창조의 열풍을 일으키라.》

백종원, 안성일동무를 비롯한 리단지휘관들은 연계수안과 발전기실기초, 취수로바닥공구리

위훈창조의 앞장에 우리가 서자

평양시리단의 돌격대원들이 발전소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치고 있다.

이들은 9월초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6개의 연계수문기동에 대한 기초공구리타입을 1주일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하루 최고 400m의 타입실적을 기록하며 지난 25일까지 시공이 복잡한 말안장형인 5개의 무덤이연계공구리타입을 완전히 계속하였다.

지금은 취수로암반굴착전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어 수수천년 문혀있던 천연암반들이 드러나고 한쪽에서는 여러개의 수문기동이 우뚝우뚝 솟아나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강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의 역센 뿌리가 되려는 애국현신의 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이겨내 오늘 1분 1초를 배

일을 위한 위훈창조의 열풍을 일으키라.》

백종원, 안성일동무를 비롯한 리단지휘관들은 연계수안과 발전기실기초, 취수로바닥공구리

평양시려단에서

트치기를 올해중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될 높은 목표를 내걸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진공적으로 하고 있다. 작업구역이 넓어지는 데 맞게 력량편성과 배치를 합리적으로 기동성있게 하고 모든 대대들에서 전격전, 립체전, 섬멸전을 드세차게 벌려 공사실적을 부쩍 올리도록 하고 있다.

연계수안의 공구리타입을 맡은 돌격대원들이 진격속도를 높이고 있다.

통성구역, 력포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장의 애국의 마음안고 수백m의 무덤이연계타입을 단 며칠사이 에 제일먼저 끝내고 지금 수문기동공구리타입을 다그치고 있다. 그들은 새롭게 창안된 원형식철근콘크리트를 리용하는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여나가고 있다.

공구리타입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혼합물생산과 보장을 맡은 선교구역, 강동군대대의 돌격대원들도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혼합물들의 만부하를 보장하고 모래와 자갈, 세멘트의 배합비율을 엄격히 지키는 한편 혼합물운반을 적극 따라세우고 있다.

철근공사공구리제작을 맡은 량랑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절단기를 비롯한 설비기동들을 높이 달겨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 운수소대의 운전사들도 차동장비를 잘하고 실패를 높여 세멘트와 골재운반에서 편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

양시려단에서

고 있다.

리단지휘관들의 예견성있는 작전밑에 여러대의 스키프가 마련되어 연계공사장에 설치됨으로써 수문기동이 높아지는데 따라 공구리혼합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공구소대 돌격대원들은 탐식기중기조직을 하루빨리 끌어내어 전반적인 공사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리단에서는 작업구역이 넓어지는 데 맞게 건설작업의 전문화방향에서 대대들을 교육시켜 작업조직을 함으로써 공사속도와 질보장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

총철호

리단지휘관들의 예견성있는 작전밑에 여러대의 스키프가 마련되어 연계공사장에 설치됨으로써 수문기동이 높아지는데 따라 공구리혼합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공구소대 돌격대원들은 탐식기중기조직을 하루빨리 끌어내어 전반적인 공사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리단에서는 작업구역이 넓어지는 데 맞게 건설작업의 전문화방향에서 대대들을 교육시켜 작업조직을 함으로써 공사속도와 질보장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

총철호

불이 번쩍 단숨에!

평안북도리단에서

서 립명철, 한순미동무들이 삼날을 쟁싸게 놀리며 공구리타입을 속도로 더해준다.

수문기동의 기초공구리타입이 기전투장에서 통천군대대와 철산군대대의 전투원들이 일손마다에 불꽃을 날리며 휘둘러안에 혼합물을 구식구식 채우고 골고루 퍼놓는다.

전동다짐기를 틀어쥔 김윤철, 정광일동무들의 구리빛팔뚝에 불끈불끈 힘줄이 튀어나올 때마다 혼합물속에서 거품이 솟고 물기가 내뿜는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주인답게, 잔잔하게 하며 매일 파제를 두둑, 세뿌씩 해제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이들이다.

맛은전에서는 물고기길기초 굴착전투가 한창이다. 일별게 획을 1.2배이상으로 넘쳐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 힘차게 뿔뿔이어나 하겠습니까.》

적재함마다 골재와 세멘트를 가득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건설장으로 연방 기세송개 들어선다.

하차작업이 끝나기 바쁘게 신의주시대대와 운산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이 맞물리전을 벌이며 곳곳에 쌓인 골재더미들을 순식간에 허물어버린다.

김경심, 김혁동무들과 박지진, 강철민동무들이 발맞춰, 마음맞춰 주고받는 먹임소리가 운반대렬의 기세를 더욱

은 나라에 체육열기가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조선인민군창작사와 만수대창작사 일군들의 축구경기가 29일 만수대창작사에 새로 꾸려진 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장은 뜻깊은 체육경기를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기념비적인 명창창작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창작가들과 일군들의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졌고 있다.

최흥해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조선인민군창작사,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이 경기를 보았다.

조선인민군창작사와 만수대창작사 일군들의 축구경기가 있었다

경기속도를 높이고 재치있는 패물기와 련락으로 상대방의 문전을 현수 위협하였다.

후반전 12분경 만수대창작사의 17번선수가 측면에서 길게 련락한 공을 11번선수가 단번차기로 성공시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분위기와 응원들이 더욱 고조되는 속에 선수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경기를 박력

있게 운영하였다.

관람자들은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보여준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며 감동받은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경기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일군들이 2:0으로 이겼다.

한편 경기장에서는 조선인민군창작사와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들의 속사경기가 2:0으로 이겼다.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명창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갈 결의에 넘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창작사와 만수대창작사 일군들의 축구경기가 있었다

경기속도를 높이고 재치있는 패물기와 련락으로 상대방의 문전을 현수 위협하였다.

후반전 12분경 만수대창작사의 17번선수가 측면에서 길게 련락한 공을 11번선수가 단번차기로 성공시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분위기와 응원들이 더욱 고조되는 속에 선수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경기를 박력

있게 운영하였다.

관람자들은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보여준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며 감동받은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경기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일군들이 2:0으로 이겼다.

한편 경기장에서는 조선인민군창작사와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들의 속사경기가 2:0으로 이겼다.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명창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갈 결의에 넘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어버이사랑을 전하는 학생소년들의 종합적인 과외생활거점

평양 학생소년 공전 창립 50돐에 즈음하여

장대재에서 본 강성조선의 미래

우리는 지금 햇빛누븐신 장대재에 서있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며 그림같이 아름다운 평양의 경치가 한눈에 굽어보이는 여기 명당자리에 내 조국의 자랑 평양학생소년공전이 자리잡고 있다.

오늘 공전은 창립 5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혁명의 미래입니다.》

반세기 가 흘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전 개관식 선포된 주제 52(1963)년 9월 30일의 격정이 다시금 가슴에 파도쳐온다.

색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은 수많은 학생소년들로 꽃밭을 이루었던 그날 분수의 물안개는 꽃보라처럼 뿌려졌고 어버이수령님을 맞이한 꽃봉오리들의 두눈은 새빨처럼 빛났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전 개관식을 온 세상에 선포한 그날의 감격을 당시 《로동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리며 춤추던 학생들은 꽃무늬를 흔들고 푸이 메이도록 단색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광휘로운 빛발아래에서 씩씩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행보의 노래소리는 장대재에 높이 울려 평양의 거리에 메아리쳐나갔다.》

장대재의 새 령사, 평양학생소년공전의 령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청소년과의 교양의 거점, 지역체교양의 종합적학교로서 누리에 빛을 뿌려온 평양학생소년공전.

얼마나 크나큰 자량이 공전력사의 갈피마다에 새겨졌는가. 내 조국의 실마리용경을 이체롭게 장식해주곤 한 학생소년들의 실마리용경도 바로 이 공전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공원에서처럼 활활한 공전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셨던 실마리용경의 그날 수령님의 손목잡고 우리의 꽃봉오리들이 당실당실 춤추며 노래부르지 않았던가. 위대하고도 은혜로운 후대사랑이 엮여지던 내 조국의 실마리용경은 직접 목격한 외국의 한 기자가 격조높이 터쳐던 시구절이 떠오른다.

귀여운 아이들의 실마리모임으로 김일성수상님 새해를 맞으시네... 출렁이는 바다인가! 아이들의 명절놀이 그 바다에 배를 띄워 수상님도 즐기시네... 학생소년공전에 들어서시면 온 세상이 화려하게 웃으시는 수상님!

뜻깊은 그날들에 어버이수령님 품에 안겨 춤추며 노래부르던 학생들이, 수령님앞에서 실마리용경을 마음껏 부르던 재간둥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평양학생소

년공전 소조원들이 온 나라 인민들의 사랑을 받은 인민배우, 인민예술가, 공훈배우, 공훈예술가,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교수, 박사도 자라났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어주시며 제일로 사랑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속에 엮여진 공전의 자랑스러운 연례를 어찌 이 글에 다 담을 수 있으랴.

장대재에 높이 솟은 이 넓고 높은 공전에 각종 소조실들이 있다.

또한 공전극장, 체육관, 야외실습장, 도서관도 있다. 하루에 1만여명에 달하는 평양시안의 학생소년들이 과학기술부, 예술부, 체육부 등의 소조실들에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수만점의 실마리용경의 선물들이 꼭 차있는 소조실들에서 마음껏 지적체의 나래를 펼치며 지난 50년간 공전에서는 673만여명의 학생소년들이 소조활동과 대동강교양활동에 참가하여 나라의 어엿한 역군으로 자라났다.

또한 공전에서는 선군조선의 부활은 꽃봉오리

들의 모습을 남김없이 시위하며 조국의 당 및 국가수반들의 참관행사를 비롯한 180여개 나라에서 온 27만여명의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참관이 진행되었으며 그들을 위한 학생소년 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 공전교직원들속에서는 로력영웅과 여러명의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수십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과 명예최초소유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공전은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단위로 자랑될치게 되었다.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공전의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나이와 수

준, 학년과 학과정도 등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양의 특성에 맞게 집체교양과 개별지도도 배합하면서 과외교양방법을 부단히 탐구하고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공전운영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하기에 우리 당의 송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받들려 청소년과외교양지도로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완벽히 갖춘 평양학생소년공전을 돌아본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부활은 조선의 어린이들이 부활이다 하면서 격정의 목소리를 터치고 또 터쳐왔다.

이 공전은 조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미래의 조선

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이 완히 내다보인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 누구든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재간둥이가 되어 나간다. 부럽다. 조선의 어린이로 다시 태어날수는 없는가!

... 그렇다. 평양학생소년공전이 높이 솟은 장대재, 이 언덕에서 서서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강성번영할 선군조선의 미래, 당의 품속에 안겨 우리 학생소년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 나라의 왕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를, — 본사기자 박옥경 사진 본사기자 김철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교원들을 믿고 조국의 미래의 학생들을 맡겼습니다.》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평양학생소년공전에서 소조활동을 한 많은 졸업생들이 인민배우, 인민예술가, 공훈배우, 공훈예술가,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교수, 박사가 되어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의 마음속에 못 잊을 스승으로 간직되어있는 사람 들속에는 공전지도교원들인 김수경, 리봉숙, 오은숙, 박관속 등의 동무들도 있다.

예술창조과 바이올린지도 교원인 김수경동무는 소조원들의 나이와 성격, 수준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그에 맞는 교재들을 선정하고 좋은 방법론을 세워 교육 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바이올린기 초숙련에 필요한 시간을 옮겨 정하고 그들의 개성과 특징을 반영하여 《교과본》도 만들었다.

정시경학생이 전국적인 학생소년에출연한 바이올린독주에서 1위를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소조원들이 3~4년동안에 훌륭한 연주 기술을 소유하고있는 성과속에는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안목과 수준이 높은 훈련지도방법 등 성실하고 꾸준한 김수경동무의 노력이 깃들여있다.

메스링소조 지도교원인 리봉숙동무는 유망한 국가선수후비들을 키우는데 공로가 크다. 그의 지도를 받으며 메스링을 배운 많은 소조원들이 4.25

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을 비롯한 전문체육단에서 활약하고 있다.

리봉숙동무는 20년간 메스링소조 지도교원을 하면서 1500개의 금메달을 쟁취하는데 기여하였다.

오은숙동무는 25년간 서예소조 지도교원을 하면서 1800여명 학생들의 재능의 싹을 키워주기 위하여 애절한 관심을 바쳐왔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사랑에하는 원수님께서 오은숙동무와 소조원들이 올린 붓글씨를 보아주시고 은정넘치는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박관속동무가 풍구소조 지도교원으로 사업하기 시작한 다음해 정일봉상전국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부터 5년간 풍구소조원들은 남자 풍구경기(학생소년공전, 학생소년회관부)에서 해마다 우승을 하였다.

4.25체육단에서 선수, 감독으로 활약하던 나날에 그는 정하고 그날보다 뜨겁게 받아들인 그는 자신의 온넉과 열정을 나라의 체육인 수후비육성에 바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소조원들을 위해 기술인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소조원들의 날로 높아가는 풍구기초기술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가꾸는 뿌리로 한생을 살며 후비육성에 모든것을 바쳐가는 이런 미담도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어 청소년과외교양지도로서의 평양학생소년공전의 생활력은 날로 힘있게 발휘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수필

왕들이 사는 집

나에게도 귀여운 딸자식을 평양학생소년공전소조로 떠밀던 행복만 추억이 간직되어있다.

푸른 숲 우거진 장대재에 오르는 층계에 때때로 작은 발자국이 찍히던 때가 엇그제만큼.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새겨진 과반 소조원증을 손에 쥐고 너무 좋아 콩콩 뛰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누구나 소원하면 어서 오라 반기는 높고 큰 공전.

여기서 선군조선의 꽃봉오리들, 나라의 왕들이 지적체의 억센 나래를 활짝 펼치고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났다.

하디면 어떻게 되어 왕들의 집이 다름아닌 여기 장대재에 높이 솟아 있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제일 좋은것을 다 어린이들에게 주고있습니다.》

앞으로 대동강물결이 유유히 흐르고 사방이 편히 트인 경치 좋은 이곳에 아이들의 공전을 세워주시는 것은 어버이수령님이 시었다.

전국의 슬픔이 해방된 공간에 차넘던 어느날 애국적상공인과 자리를 같이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들의 성의가 깃든 회색담을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깊은 뜻을 담아 하신 말씀은 세월의 언덕 넘어 메아리쳐온다.

여기에 아동공전을 지으려고 한다. 옛날에는 왕이 공전을 차지하였지만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는 귀여운 우리의 후대들이 공전을 차지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씩씩하고 용감하게 키워야 우리 나라가 굳세어지고 우리 민족이 번영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

그렇게 갖추어진 아이들의 공전이 미래가 열린 공전의 불길속에서 제대미로 변하게 되었다. 우리 세대원들은 이 땅우에 조선의 미래가 지르게 될 공전이 일떠서는것을 두려워하였다. 해방전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할 목적으로 도처에 쇠말뚫을 박아놓았다면 미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의 미래를 송두리채 말살하기 위해 파괴의 파괴를 아이들의 집으로 정한것이다.

한층 높을 키워도 파년이 절명거리니 그것을 찾아 공전을 만들고 보란듯이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후 공전건설과 관련한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었다.

방공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전을 지어 주신다는 노래소리를 들으시고는 우리가 아이들이한테 믿을 것 같다고 하시며 아슬한 건설장의 발판을 짚고 오르시던 그 걸음걸음에 받들려 감정이 솟아 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송고한 후대사랑을 온몸에 안으시고 몸소 공전건설을 후려온 맘을 바쳐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자취자취와 더불어 공전은 자기의 운장을 드러내게 되었다.

내 조국의 자랑 평양학생소년공전은 이렇게 일떠섰다. 절세위인들의 사랑에 받들려 해방된 조선의 명당자리에, 전하의 재미로 된 영웅조선의 땅에 아이들이의 집, 왕들의 집으로 갖추어졌다.

정병 장대재에 높이 솟은 평양학생소년공전이야말로 이 땅에 누가 왕으로 떠받들려오며 만복을 누리려는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뜻깊은 기념비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오직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만 평양학생소년공전과 같은 큰 공전에서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습니다.》

...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가지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 지리 ...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굳지도록 이 노래하고 친해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힘찬 전군을 다그치는 선군조선의 모습을 승업하게 보여주는 가요 《조국찬가》의 선율이 울리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은 끌려갔다.

피아노소조실이었다.

소학교, 중학교학생들이 명목의 사상주제내용에 맞게 연주를 짜 세련되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라게 해주었다.

넓고 환한 소조실에 놓여 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 어버이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피아노들도 우리의 마음을 후하게 해주었다.

하디면 피아노전반을 능란하게 놀리며 그 어떤 명목도 손색

지적체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소조실들을 찾아서

없이 연주해가는 재간둥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었다. 지도교원인 우리끼리 다가가 자료집을 보여줘야겠다.

피아노소조활동 및 성과자료 집이었다.

지난 기간 이곳 소조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학생소년에출연한 피아노독주에서 우수한 자료와 함께 학생들의 사진들도 꼭 차있는 자료집은 그대로 이 소조가 걸여온 자랑스러운 자취자취이기도 하였다.

알고보니 피아노소조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소조에는 수도의 여러 구역의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수십명의 학생들이 망라되어 피아노연주법을 익히고있다고, 그들의 모습을 본 외국소년들이 학생들의 피아노연주수준이 높은데 대하여 부러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소조를 다닌 학생들이 전문예술단체에서 활약하고있을뿐아니라 인민군부대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의 앞장에 서고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기쁨보고회 진행

평양 학생소년공전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평양학생소년공전창립 50돐 기념보고회가 29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정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청년동맹위원장, 평양학생소년공전 교직원, 소조원들, 졸업생들, 금성제1중학교를 비롯한 시내 여러 학교의 교직원, 학생소년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학생소년공전 총장 김창국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평양학생소년공전의 정령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송고한 후대관과 현명한 령도의

마음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서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서... 학교교육과 밀접히 결합한 가정교양은 어떤 청금이의 가슴속에 애국의 소중함을 깨우며 무력 무력 울려지르게 하였다.

어느날 청금이는 어머니에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아가자고 말하였다.

그는 딸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제의 최고수준을 더욱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그리고 백두산선군경

없다고 하시며 수도에서 가장 좋은 명당자리에 장대재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전을 짓도록 하여주시고 수십차례 찾아오시였으며 수만점에 달하는 기재와 실비들을 선물로 안겨주신 절세위인들의 은정넘친 사랑이 그대로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는 참의미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새겨안으며 공전을 나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성호



위대한 김정

김일성동지께와

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9일 주요화형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 주우호회대담회를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세계 자주화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

의 마음이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사를 우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중주우호회대표단 단장은 위인들께서는 영생하시리라 믿고 그들의 위업은 길이 빛날것이다고 썼다.

우리 나라

2014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 선수권대회 본선경기 참가자격 획득

10월 중 지자기 현상

2014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예선 9조에 속한 우리 나라 팀과 중국팀사이의 경기가 29일에 진행되었다.

중간지대에서의 공장악물을 높여 주동권을 쥐기 위한 방형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하여 시작부터 치열하게 벌어진 경기는 0:0으로 비진 가운데 끝났다.

결국 우리 나라 팀은 조에서 1위를 하여 2014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본선경기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10월에 일기와 기라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3일(23-24시), 7일(1-3시), 12일(5-7시), 16일(22-24시), 18일(22-24시), 21일(18-20시), 25일(11-13시)

청진지방

3일(22-24시), 5일(17-19시), 11일(4-6시), 19일(23-24시), 22일(18-20시), 25일(11-13시), 30일(21-23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입니다.》

얼마전 《마시명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수도의 중요대상건설장을 찾았던 우리는 순천향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중요대상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쁨을 드러달라는 부탁과 많은 원호물자를 안고 어머니와 함께 건설장을 찾았다는 순천향 대동고급중학교 소학생 최정금학생에 대한 이야기였다.

《저희들은 그날 온 나라 인민

소중

교원들의 한결같은 최정금학생의 위에는 자식을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애쓰는 김명부녀성의 노력이 크게 깃들여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무도 뜻밖에 어버이장군님을 뵈고 비문에 몸부림치던 김명부녀성은 마음속으로 자식을 훌륭히 키워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만들어모시도록 하리리 마음다였다.

그때부터 그는 딸의 손목을 잡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소중

교원들의 한결같은 최정금학생의 위에는 자식을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애쓰는 김명부녀성의 노력이 크게 깃들여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무도 뜻밖에 어버이장군님을 뵈고 비문에 몸부림치던 김명부녀성은 마음속으로 자식을 훌륭히 키워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만들어모시도록 하리리 마음다였다.

그때부터 그는 딸의 손목을 잡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소중

교원들의 한결같은 최정금학생의 위에는 자식을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애쓰는 김명부녀성의 노력이 크게 깃들여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무도 뜻밖에 어버이장군님을 뵈고 비문에 몸부림치던 김명부녀성은 마음속으로 자식을 훌륭히 키워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만들어모시도록 하리리 마음다였다.

그때부터 그는 딸의 손목을 잡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소중

교원들의 한결같은 최정금학생의 위에는 자식을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애쓰는 김명부녀성의 노력이 크게 깃들여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무도 뜻밖에 어버이장군님을 뵈고 비문에 몸부림치던 김명부녀성은 마음속으로 자식을 훌륭히 키워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만들어모시도록 하리리 마음다였다.

그때부터 그는 딸의 손목을 잡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소중

교원들의 한결같은 최정금학생의 위에는 자식을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애쓰는 김명부녀성의 노력이 크게 깃들여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무도 뜻밖에 어버이장군님을 뵈고 비문에 몸부림치던 김명부녀성은 마음속으로 자식을 훌륭히 키워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만들어모시도록 하리리 마음다였다.

그때부터 그는 딸의 손목을 잡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실천강령

보수언론은 첫번째 청산대상

북과 남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채택 발표한 때로부터 6년이 되었다. 역사적인 10.4선언은 나라의 통일운동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갈 것을 확약한 6.15 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 위한 실천강령이며 가장 정확한 행동지침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마련하기 위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김정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다스리 가슴뜨겁게 되새기고 있으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6.15의 기치를 높이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10.4선언은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에서 북과 남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기초하여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의 기본책을 이루고 있다. 10.4선언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그의 실현은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리행을 촉진시킨다.

우리의 최고종업과 체제를 비방중상하는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피괴적책이 우리의 최고종업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범죄행위를 감행했다는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얼마전 피괴패당이 그 무는 《아산정 책연원》이라는 사이비연구기관을 내세워 미국과 주변나라들의 어중이떠중이 전문가들을 사술에 끌어다놓고 《불안정》이니, 《붕괴가능성》이니 뉘나 하는 따위의 망발들을 채쳐대며 우리의 최고종업과 체제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광대놀음을 벌였다.

그러나 하던 피괴범행위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제3국의 언론들과 전문가, 학자나부엌에 붙은 잡소리를 끄적여내놓고 그것을 적극 여론화하였다.

한편 《세계일보》, 《이데일리》 등은 미국 펜트건연구소 작성한 근거없는 내용의 보고서내용을 되받아 남기면서 그 무는 《책인구역》이니, 《경계선》이니, 《비밀협상》이니 뉘나 하는 황당난 나발까지 붙여대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중상모독이며 또 하나의 참혹수 없

는 극악한 도발이다.

피괴패거리들이 떠들고있는 그 무는 《북괴론》으로 말하면 초보적인 판별력도 없는 얼빠진 자들의 나발로서 지탄 시키기 여의치 않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때에 대한 커다란 신심과 확관에 넘쳐있다.

우리의 가장 엄격한 고난의 행군시절이 다져졌을 때 격들은 가소롭게 도 빠르면 3일이나 3달, 늦어도 3년이나 뛰니 하는 그 무는 《3, 3, 3》이라는 시간표까지 내뉘리며 북이 얼마 가지 못하면 도요한스럽게 떠들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얼마나 흘렀고 현실은 또 어떠한가.

이 땅에서는 인공위성이 편이여 우주로 날아오르고 세기를 뛰어넘는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며 인민적시책, 사회주의로명이 활짝 꽃피는 속에 로동당단체, 사회주의민족사회가 더 높이 울려 퍼져 인민들을 진솔하게 웃겼다.

주체의 사회주의로 존엄법치는 우리 공화국은 피괴패당이 아무리 떠들어도 붕괴가 아니라 더욱 무성해 승승장구하고있다.

자기 명도자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뢰는 절대적이며 천만군인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시

회주의 필승불패성은 이미 엄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위대한 령장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함에 공화국의 위력과 기상을 세상에 떨치고 있는 것은 오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때에 대한 커다란 신심과 확관에 넘쳐있다.

우리의 공화국의 이 정면하고 궁지없는 현실을 한사코 부정하고 《북괴》니 뉘나 하는 따위의 허망한 꾀변들을 늘어놓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가련한 정신병자들이 아닐수 없다.

공민적이라는 이름은 다름아닌 남조선피괴패당이.

지금 남조선은 국도의 정치적혼란과 위기로 초상집이 되어가고있다.

사대매국파 동족대결, 반인민적양정으로 레이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몰아오는 피괴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의 원성과 저주는 하늘에 닿고 피괴패당체제는 밀부러져 흔들리고있다.

그러한 주제에 그 누구에 대해 어찌 고자책고 하는 것이야말로 무덤의 망두석도 웃지 않을수 없는 회피국이다.

진신나간것들의 허수아비를 외워대는 피

괴보수패당의 추태는 체제대결에 얼마나 한창이 되어있는가 그대도 보여준다.

피괴들이 어중이떠중이들의 미친개소리들을 되받아넘기며 《북괴》인연조작에 매달리고있는 것은 위대한 선군명왕의 기상과 우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 비쌍히 높아진 공화국의 위상에 전철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며 주체의 사회주의의 영성을 흐려보려는 어리석은 광란이다.

하지만 그러한 쓸개배신자들의 오설에 귀 기울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공화국은 악동하는 굶음으로 비약하고 역센 기상으로 백승행치며 무궁토록 강성번영할것이다.

무덤하게도 감히 우리 존엄과 체제를 훼손해놓고 미쳐달라는 피괴패당은 물론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은 거기서 건, 하지만 건, 전문가건, 방송원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감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종업과 체제를 조금이라도 비방중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엔대가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는 피괴패당을 규탄하여 1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서울지방경찰청이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동》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당국이 단계가 별된 미군철수, 《보안법》 제정, 6.15 공동선언, 10.4선언리행을 위한 투쟁 등을 북의 주장과 같다고 결

고하면서 《리적단체》로 몰아 괴소문과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단체를 통한 반공과 억지로 결부시키며 외국인 여론을 언론에 류포시키기도 하였다.

공안당국의 《리적단체》 조작 선동에 걸려들지 않을 진보단체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단 려하였다.

오늘은 진보세력이 잠허가고 배일은 개혁세력이 잠허가고 모래는 종교세력이 잠허간 암흑의 시기가 바로 《유신》 통치시기였다고 하면서 제반

사실들은 현 《정권》에 의해 과소독제가 전면부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당국이 《리적단체》 조작소동을 즉시 중지하고 과소광판국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화에 역행하던 《유신》바람으로 집권위기를 모면할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정보원체제, 현 《정권》반민주 요구하는 초법민심은 반민주 《정권》을 송두리채 태워버리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악형을 들썩은 폭거

남조선 《한림뉴스》에 의하여 26일 남조선피괴패당이 로수회 조국통일범민련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피괴패당은 남측본부의 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피괴패당은 남측본부의 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 《한림뉴스》에 의하여 26일 남조선피괴패당이 로수회 조국통일범민련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피괴패당은 남측본부의 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피괴패당은 남측본부의 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 《한림뉴스》에 의하여 26일 남조선피괴패당이 로수회 조국통일범민련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피괴패당은 남측본부의 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피괴패당은 남측본부의 정역 4년을 선고하였다.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여 시국선언 발표

남조선과 해외의 100여개 단체와 600여명의 인사들이 11일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운동에 대한 피괴패당의 탄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현 집권세력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남북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주장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보안법》에 걸여 탄압하고 지어 《중복》, 《행정》이라는 따지를 붙여 잡아두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특히 현재 벌어지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소동은 통일운동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보안법》협박의 탄압광풍이 더욱 확대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 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중의 요구를 《중복》,

《리적》행위로 몰아 탄압하는 과소폭거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범민련과 통일운동탄압 중단하고 모든 망심수를 석방하라!

【조선중앙통신】

《중복》 탄압행동 중단하고 평화통일운동 보장하라!

사상, 표현, 표현의 자유 읍어 때는 《보안법》 폐지하라!

정보원을 해체하라!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도의 정치적혼란과 위기는 더러는 권력을 유지하고 반역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피괴보수패당의 악역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국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민심의 규탄과 배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순하기 그 지않은 《중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사회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유신 《중복》을 부활시키기 위해 발발하고 있다.

말하자면 피괴패당은 리명박덕도 진보세력의 말살과 위기수습을 위해 적극 써먹던 《중복세력결절》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현대판나사상》에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피괴정보원이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인 판련된 그 무는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에 미쳐달리고있는 것은 《중복》소동의 가장 뚜렷한 실례이다.

피괴정보원이 발표한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리석기가 《사하형명조》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앞으로 전쟁에 대비하여 경찰서와 무기고들을 습격하여 무장을 갖추며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을 파괴하여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을 작성했다는 사건이다.

피괴들은 사건의 주요인물이 라고 하는 리석기를 비롯한 10여명의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체포수감하는 등 살벌한 탄압소동을 벌리었

다. 지어 이들과 《북괴》의 령제고리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집중하고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조수패당에 그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와 무관하게 연결시켰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중복세력결절》 평가가 절정에 달하고있다.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피괴정보원과 경찰의 사전조작행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국회》에 잡힌 《중복세력》을 모조리 적발해내려고 야만법정이다. 이번 추적을 맞으며 《새누리당》의 과소광풍은 《중복세력》인 통합진보당은 《회》, 《중복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이던 민주당에 있는 《경고》를 보낸다 는 광고까지 냈다.

이것이 사회전반에 걸쳐 《중복》광풍을 쇄신해 일으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배격감을 조성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정보현대선개입사건》으로 인한 국도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 피괴정보원의 《중복》소동은 선형 《정권》인 리명박덕도시기를 훨씬 통과하고 있다. 보수패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보현대선개입사건을 동원하여 인터넷에 야당후보들을 《북에 추종하는 중보인물》로 묘사 모략광풍을 수없이 올려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든 전례를 가지고있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중복》소동의 《덕》으로 《대통령

리에 올랐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정이다.

《중복》소동에 제미가 든 피괴보수패당은 집권초기부터 저들의 반역정체가 날발이 드러나 통치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시 《중복》광풍을 일으키며 출몰을 찾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중복》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유행어처럼 퍼져나가고있다.

피괴보수패당은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벌리는 초법집회에 대해서도 《중복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한 사태라고 말하고 반인민적양상에 대한 것의 불만을 드러내며 《중복》으로 몰려 인간적 초보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요구하여도 《중복》, 《선거》에서 저들패거리가 락선되도록 《중복세력의 작간》이라고 떠들고있다. 지어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남조선상을 상정하는 노릇을 부리지 않자 《중복》이라고 고대고 나중에는 감히 보수수습성도 《중복》의 걸과라고 악담을 해대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국의 정치적주장과 향심을 굽지 않는 인사들, 락고 살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까지 《중복》의 감투를 쓰고 탄압과 박해를 당하는 몸서리치는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정보현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피괴정찰총장까지 《중복》으

로 몰려 판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런 살벌한 현실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1970년대의 《유신》독재가 되살아났다고 갈아 정악을 굴할수 없다고 격분을 터치고있다.

피괴보수패당의 무차별적인 《중복》소동으로 하여 남조선사회는 그야말로 민주와 인권의 강령이 유린당하고있고 인권과 폭압이 만무하는 과거의 독재사태로 완전히 되돌아갔다. 이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흘려 써유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자며 역사발전의 가로막는 반동공세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것은 피괴패당이 감행하고있는 《중복》소동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극구 가로막고있다는데 있다. 《중복》이란 말 자체가 동쪽에 대한 국도의 적대감과 거부감의 뚜렷한 표현으로서 동쪽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사코 해체려고 발광하는 반통일적자들이 즐겨 위우는것이다. 《중복》소동이 몰아올리는 결국 북남관계의 과극박에 있다.

피괴정보원패거리들이 그 무는 《북과 관계》 되었다고 하는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북남관계에 엄청난 위기가 조성된것을 그것을 말해준다. 사실상 피괴당국이 갑자기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들고 나와 그것을 우리와 억지로 련 결시킴은 좋게 발전하는 북남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남조선이 사기와 협박, 살인과 폭력이 판을 치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온갖 페루메적이 성행하는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사회의 색교 병든 실태를 몇가지 사실자료들을 통해 보려고 하자.

10대의 보험사기군들

올해 2월 어느날 서울시 종로구의 한 좁은 도로에서 16살 난 한 소년이 기차를 엮다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는 팔이 부러졌다고 소환을 피하면서 보험회사에서 60만원의 치료비를 읍어낸 일이 있었다. 서울에서 만하여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3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1억

200여만원의 돈을 전취하였다고 한다.

경찰에 체포된 그들은 보험사기방법으로 큰돈을 벌기 위해 그런 행동을 나섰다고 진술하였다.

벗꾼의 돈 때문에

남조선에서 얼마전 재산을 노리고 아들이 동료들과 공모하여 혼자 사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놀라운 범죄사건이 일어났다.

범죄자는 아버지가 모이아제 산이면 빚을 청산할수 있다고 하면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짓을 행하였다. 이자는 아버지를 살해하고는 집까지 팔아먹으려 하였으며 아버지집에 태연히 드러

들면서 돈이 필만 한것은 다 팔아먹었다고 한다.

경찰도 두려워하는 범죄만연지대

수원역 주변지역은 범죄자들이 너무도 살판쳐 피괴경찰들도 들어가서 꺼리는 곳이라고 한다. 최근까지 이곳에서 근무하였던 한 경찰은 사람들이 창가림도 풍풍 치고 문도 이층상중으로 잠고있기때문에 문밖에서 사건이 발생하여도 목격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하면서 이곳은 경찰들도 범죄자들로부터 습격을 당할까봐 두려워 낮에도 범법하기 싫어한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도의 정치적혼란과 위기는 더러는 권력을 유지하고 반역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피괴보수패당의 악역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국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민심의 규탄과 배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순하기 그 지않은 《중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사회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유신 《중복》을 부활시키기 위해 발발하고 있다.

말하자면 피괴패당은 리명박덕도 진보세력의 말살과 위기수습을 위해 적극 써먹던 《중복세력결절》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현대판나사상》에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피괴정보원이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인 판련된 그 무는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에 미쳐달리고있는 것은 《중복》소동의 가장 뚜렷한 실례이다.

피괴정보원이 발표한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리석기가 《사하형명조》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앞으로 전쟁에 대비하여 경찰서와 무기고들을 습격하여 무장을 갖추며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을 파괴하여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을 작성했다는 사건이다.

피괴들은 사건의 주요인물이 라고 하는 리석기를 비롯한 10여명의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체포수감하는 등 살벌한 탄압소동을 벌리었

다. 지어 이들과 《북괴》의 령제고리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집중하고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조수패당에 그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와 무관하게 연결시켰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중복세력결절》 평가가 절정에 달하고있다.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피괴정보원과 경찰의 사전조작행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국회》에 잡힌 《중복세력》을 모조리 적발해내려고 야만법정이다. 이번 추적을 맞으며 《새누리당》의 과소광풍은 《중복세력》인 통합진보당은 《회》, 《중복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이던 민주당에 있는 《경고》를 보낸다 는 광고까지 냈다.

이것이 사회전반에 걸쳐 《중복》광풍을 쇄신해 일으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배격감을 조성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정보현대선개입사건》으로 인한 국도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 피괴정보원의 《중복》소동은 선형 《정권》인 리명박덕도시기를 훨씬 통과하고 있다. 보수패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보현대선개입사건을 동원하여 인터넷에 야당후보들을 《북에 추종하는 중보인물》로 묘사 모략광풍을 수없이 올려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든 전례를 가지고있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중복》소동의 《덕》으로 《대통령

리에 올랐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정이다.

《중복》소동에 제미가 든 피괴보수패당은 집권초기부터 저들의 반역정체가 날발이 드러나 통치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시 《중복》광풍을 일으키며 출몰을 찾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중복》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유행어처럼 퍼져나가고있다.

피괴보수패당은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벌리는 초법집회에 대해서도 《중복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한 사태라고 말하고 반인민적양상에 대한 것의 불만을 드러내며 《중복》으로 몰려 인간적 초보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요구하여도 《중복》, 《선거》에서 저들패거리가 락선되도록 《중복세력의 작간》이라고 떠들고있다. 지어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남조선상을 상정하는 노릇을 부리지 않자 《중복》이라고 고대고 나중에는 감히 보수수습성도 《중복》의 걸과라고 악담을 해대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국의 정치적주장과 향심을 굽지 않는 인사들, 락고 살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까지 《중복》의 감투를 쓰고 탄압과 박해를 당하는 몸서리치는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정보현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피괴정찰총장까지 《중복》으

로 몰려 판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런 살벌한 현실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1970년대의 《유신》독재가 되살아났다고 갈아 정악을 굴할수 없다고 격분을 터치고있다.

피괴보수패당의 무차별적인 《중복》소동으로 하여 남조선사회는 그야말로 민주와 인권의 강령이 유린당하고있고 인권과 폭압이 만무하는 과거의 독재사태로 완전히 되돌아갔다. 이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흘려 써유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자며 역사발전의 가로막는 반동공세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것은 피괴패당이 감행하고있는 《중복》소동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극구 가로막고있다는데 있다. 《중복》이란 말 자체가 동쪽에 대한 국도의 적대감과 거부감의 뚜렷한 표현으로서 동쪽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사코 해체려고 발광하는 반통일적자들이 즐겨 위우는것이다. 《중복》소동이 몰아올리는 결국 북남관계의 과극박에 있다.

피괴정보원패거리들이 그 무는 《북과 관계》 되었다고 하는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북남관계에 엄청난 위기가 조성된것을 그것을 말해준다. 사실상 피괴당국이 갑자기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들고 나와 그것을 우리와 억지로 련 결시킴은 좋게 발전하는 북남

